

#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

関西に残された朝鮮通信使の足跡



교토국제중 · 고등학교



奥村正信筆「朝鮮人來朝図」東京国立博物館蔵  
오쿠무라 마사노부 그림 「조선인래조도」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羽川藤永の肉筆画「朝鮮人來朝図」と構成図柄がほぼ同じ  
하네가와 토우에이의 육필화 「조선인래조도」와 구성・그림의 형태가 거의 동일

江戸の客館浅草本願寺に向う通信使の一行。駿河町越屋呉服店のあたりと思われます。江戸の人達の待ちわびた大行列が清道旗や刑名旗と共に通過して行く様が描かれています。晴着を着た見物衆の中には、子供に乳房を含ませた母親もみえます。透視遠近法を取り入れた浮絵の技法で描かれた筆彩画。1748(延享5)年、九代将軍家重の襲職祝賀に來日した通信使一行を模した祭礼図といわれています。羽川藤永筆の原画からの模写と考えられます。

에도의 객관인 아사쿠사 본원사(혼간지)로 향하는 통신사 일행, 스루가초 에치고야 포목점 근처로 여겨진다. 에도사람들이 고대했던 대행렬이 통과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들이옷을 입은 구경꾼들 중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엄마도 보인다. 투시 원근법을 도입한 우키요에(일본화의 한 종류)의 기법으로 그려진 필채화. 1748년 9대 장군 이에시게의 장군 지위 계승 축하로 방일한 통신사 일행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졌다. 하네가와 도이가 그린 원화(原畵)를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羽川藤永「朝鮮通信使来朝図」(個人蔵)・하네가와 토우에이「조선통신사래조도」(개인소장)  
 江戸・日本橋の町中を新宿の浅草東本願寺へ向かう通信使の行列  
 에도・니혼바시에서 아사쿠사혼간지로 향하는 통신사 행렬



羽川藤永「朝鮮通信使来朝図」(神戸市立博物館)・하네가와 토우에이「조선통신사래조도」고오베시립박물관소장

## 朝鮮通信使の善隣友好の道を歩みながら

朝鮮国と江戸幕府との間の外交使節団である朝鮮通信使の一行が、両国に残した‘外交記録’、‘旅程記録’、‘文化交流の記録’という三つの観点からの111件、333点が2017年10月31日、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

1607年から1811年までに韓国と日本が信(よしみ)を通わすとして外交の往来を行った朝鮮通信使の歩みは、国家間の外交関係の成立による交流だったが、一方では文化交流であり、貿易であった。

大阪の高麗橋、北御堂、竹林寺などと京都五山の寺や宿所の各寺をはじめ、方広寺大仏殿、淀川と川御座船、滋賀の朝鮮人街道、宗安寺の黒門、赤門と江国寺の扁額の文字などは、過去200年間の朝鮮通信使の訪問によって関西地域に残された遺物と遺跡である。

朝鮮通信使は漢陽(ソウル)から日本の江戸(東京)までの1,158キロの道のりを8か月から10か月余りをかけて、12回往来した。このうち関西地域に限って、外交、文化、貿易などの残された足跡を探り、「関西に残された朝鮮通信使の足跡」というタイトルで学習補助教材を発刊した。

昨今、韓日関係が好ましくない姿で進行中だ。「互いに欺かず、戦わず、真実をもって交流する」という雨森芳洲が提唱した「誠信交隣」の精神をあらためて吟味してみる。

朝鮮通信使による韓日交流は、日本の朝鮮侵略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続いた。200年

余りの韓日間の大規模な交流は、両国の友好的な関係構築はもちろん、学問と文化の発展に寄与した。

朝鮮通信使による交流が残した精神とその価値を、絶やすことなく実現化し、追求していくことは、我々に負わされた義務であり使命であると考える。

日本の文化遺産の中心都市であり、朝鮮通信使の移動拠点の一つである京都に位置する本校では、韓日両国の学生が共に学んでいる。両国の交流の変化を在学生在が直接、間接的に体感する学校として、これまで以上に誠意と信義に基づいた国際協力の重要性を説く教育が必要である。

発刊された教材の活用を通して、在校生が誠信交隣の精神をもって互いに理解、協力し、韓国や日本のどこであっても共生する人生を歩んで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

本教材が発刊されるまで、多忙な中、監修してくださった金頭先生、そして検討会に参加し、内容に関して資料提供や指導及び意見をくださった仲尾宏先生に感謝いたします。

本教材が韓国だけでなく、日本国内で朝鮮通信使を正しく理解するために十分に活用されることを期待しつつ、長い時間、共に悩んでくださった本校の社会科の先生たちに感謝申し上げます。

2019年の晩秋、本多山の校庭で、

朴慶洙

## 조선통신사 선린우호의 길을 걸으며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 사절단 인 조선통신사 일행이 양국에 남긴 기록 중,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이라는 세 관점의 111건 333점이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국과 일본이 성신으로 외교 왕래를 한 조선통신사의 사행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의한 교류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교류이며 무역이었다.

오사카의 고려바시, 기타미도, 죽림사(치쿠린지) 등과 교토 방광사 대불전, 요도강, 시가의 조선인가도, 종안사(소안지) 흑문, 적문과 강국사(고우코쿠지)의 현판 글씨 등은 200년간 조선통신사의 방문에 의해 간사이에 남겨진 유물과 유적들이다.

조선통신사는 한양(서울)에서 일본의 에도(도쿄)까지 한 번에 8개월에서 10여개월간 걸리는 1,158킬로미터의 여정을 10회 오갔다. 이 가운데 간사이 지역으로 한정해 외교, 문화 교류, 무역 등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학습보조 교재를 발간한다.

작금에 들어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 중이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제창한,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진심으로 교류한다”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을 다시 음미해 본다.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교류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있었음에도 계속되었다. 한일간에 200여년간 이루어진 대대적 규모의 교류는 양국 우호관계 구축은 물론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남긴 정신과 그 가치를 계속하여 실현하고 추구해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워진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문화유산의 중심 도시이며 조선통신사의 이동 거점중 하나인 교토에 자리하고 있는 본교에서는 한일 양국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양국 간의 교류변화를 재학생이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학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성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발간되는 교재 활용을 통해 재학생 모두가 성신교린 정신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일본 어디서든 함께 공생하는 삶을 형성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바쁘신 중에도 협력해준 교토산업대학 김현 선생, 그리고 검토회에 특별히 참석해 지도와 의견 그리고 자료 제공을 해주신 교토조형예술대학교 나카오 히로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 교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안에서 조선통신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함께 고민해 주신 본교 사회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9년 늦가을 혼다야마 교정에서

교장 박경수



# 目次・목차

<b>I. 朝鮮通信使概観・조선통신사 개관</b> .....	9
1. 朝鮮通信使とは・조선통신사에 대해 .....	10
2. 朝鮮通信使の旅程・조선통신사의 여정 .....	16
3. 朝鮮通信使行列の理解・조선통신사 행렬의 이해 .....	37
4. 移動と手段・이동과 수단 .....	55
5. 宿泊と食事・饗応食・숙박과 식사・향응식 .....	64
6. 文化と服装・문화와 복장 .....	74
<b>II. 関西と朝鮮通信使・간사이와 조선통신사</b> .....	83
1. 兵庫(室津・兵庫津)・효고(무로쓰・효고쓰) .....	84
2. 大坂・오사카.....	102
3. 枚方・히라카타.....	121
4. 淀・요도 .....	125
5. 京都・교토 .....	131
6. 大津・오쓰 .....	172
7. 守山・모리야마.....	176
8. 近江八幡・오미하치만.....	180
9. 彦根・히코네 .....	191
<b>III. 教訓と意味・교훈과 의미</b> .....	207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



# 朝鮮通信使概觀

## 조선통신사 개관

- |               |                 |
|---------------|-----------------|
| 1. 朝鮮通信使とは    | 1. 조선통신사에 대해    |
| 2. 朝鮮通信使の旅程   | 2. 조선통신사의 여정    |
| 3. 朝鮮通信使行列の理解 | 3. 조선통신사 행렬의 이해 |
| 4. 移動と手段      | 4. 이동과 수단       |
| 5. 宿泊と食事      | 5. 숙박과 식사·향응식   |
| 6. 文化と服装      | 6. 문화와 복장       |



# 1. 朝鮮通信使とは・조선통신사에 대해

## ① 壬辰倭乱・丁酉再乱(慶長文祿の役)以前における外交使節団

壬辰倭乱・丁酉再乱(文祿・慶長の役)以前にも高麗・朝鮮王朝から日本に派遣された小規模な通信使(使節団)が存在していました。壬辰倭乱以前においては、主に相互貿易のため使節団を派遣し、倭寇の取締りの要請・大蔵経の贈呈などが目的でした。

1429年世宗大王の時に派遣された使節団に初めて「通信使」という名称が使用されます。この通信使は、新將軍足利義教の就任祝いが目的でした。1443年に来日した通信使も新將軍の就任祝いが目的であり、室町時代には、朝鮮通信使が計3回来日しており、その他の名称で10回にかけて朝鮮から使節団が派遣されます。

しかし、日本国内では、15世紀後半「応仁の乱」が起き、足利幕府の権威は衰え、大名らの争いや下剋上が頻繁に起こる「戦国時代」と呼ばれている戦乱が約100年間続くこととなります。このため、朝鮮との関係は対馬を中心とした貿易のみが残ることになります。

## 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16世紀日本の戦国時代は、豊臣秀吉によって終結することになります。日本国内を統一した豊臣秀吉は1587年国内における自身への不満勢力の目を国外へ向け、支配権を強化す

## ① 임진왜란·정유재란 이전의 외교 사절단

임진왜란·정유재란 이전에도 고려·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사절단)가 존재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주로 상호 무역을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왜구의 단속 요청, 대장경의 증정 등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1429년 세종 때 파견된 사절단이 「통신사」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이때 파견된 통신사는 새로 취임한 장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의 취임 축하가 목적이었다. 1443년에 방일한 통신사도 신임 장군 취임 축하가 목적이었으며, 무로마치 시대에는 조선통신사가 총 3회 방일했으며, 이외 다른 명칭으로 10회에 걸쳐 조선에서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5세기 후반 오우닌의 난(応仁の乱)이 일어난 이후 아시카가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지방 영주(다이묘:大名)들 간의 전쟁이나 하극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국시대」라 불리는 전란이 약 100년 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과의 관계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무역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 ②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일본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자신에 대한 국내 불만 세력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지배권을 강

るために朝鮮と中国大陸の明国を征服することを決め、諸大名らに戦の準備をさせます。

まず、豊臣秀吉は対馬の領主である宗義調に朝鮮との交渉を命じ、朝鮮国王に「朝鮮は豊臣秀吉に服従し、明征服の先鋒にたつこと」を要求するよう命令を下します。

しかし、このような要求は朝鮮が絶対受け入れないと判断した宗氏は「豊臣秀吉が新たな日本国王になったので親善通信使の派遣」を朝鮮へ申し入れました。しかし、この要請も朝鮮は拒否し、豊臣秀吉は宗氏を通して再度通信使派遣を要請します。

1589年当時対馬の領主である宗義智(宗義調の養子)自ら朝鮮へ渡り、豊臣秀吉の全国統一を祝う通信使の派遣を強く要請します。これに対し、朝鮮はやむを得ず1590年通信使を派遣します。しかし、この通信使はあくまでも豊臣秀吉の全国統一を祝う目的でありましたが、秀吉は通信使一行が自分への服従を伝えるための使節団と思ひ込みます。

ゆえに、秀吉は「征明嚮導」即ち、明を征服するために道案内を要求した国書を使節団に渡します。この要求により朝鮮との戦争が起きうると懸念した対馬の宗義智と彼の舅である小西行長は「征明嚮導」を「暇道入明(朝鮮に道を借りて、明に入る)」と要求内容を変えて、交渉に当たります。

しかし、朝鮮は明との関係を重視し、この要求を拒否しました。

このような交渉が続く中、秀吉は朝鮮侵略を準備しはじめ、諸大名らに招集令を出し、現在の佐賀県唐津市に名護屋城を築城させま

화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 명나라를 정복하고자 각 지방 영주들에게 전쟁 준비를 명령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먼저 대마도 영주인 소 요시시게(宗義調)에게 조선과의 교섭을 명하고 조선 국왕에게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종하고 명 정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조선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새로운 일본의 국왕이 되었기에 친선 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조선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도 조선은 거부하였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재차 소를 통해 통신단 파견을 요청했다. 1589년 당시 대마도 영주인 소 요시토시(宗義智; 소 요시시게의 양자)가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는 통신사 파견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마지못해 1590년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 통신사는 어디까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는 목적이었으나, 히데요시는 이 통신사 일행을 자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사절단으로 착각하였다. 그래서 「정명향도(征明嚮導)」 즉, 명을 정벌하려고 하니 길을 안내하라고 요구한 국서를 전달했다. 이 요구로 인한 조선과의 전쟁을 우려한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와 그의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정명향도(征明嚮導)」를 「가도입명(暇道入明); 조선에서 길을 빌려 명을 친다」라는 요구로 바꾸어 교섭에 임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 명과의 관계를 중시했기에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각 지방 영주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현 사가현 카라츠시에 나고야성을 축성케 하였다. 교섭이 결렬된 후 1592년 4월

す。朝鮮との交渉が決裂し、1592年4月総勢16万の日本軍は朝鮮を侵略します。

### ③ 江戸幕府の時、再開された朝鮮通信使

豊臣秀吉死後、政権を取った徳川家康は、1603年江戸に幕府を開きます。幕府を開いた徳川家康は、幕府の支配安定と権威を高めるために朝鮮通信使来訪の再開を望むようになります。

徳川幕府の立場から考えれば、国内政治の安定のため、隣国との平和的な関係を作ることが最も必要であり、特に朝鮮通信使は、朝鮮侵略に失敗した前政権とは異なり、平和的關係構築を通して幕府の権威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かと判断をします。また、大名らに江戸まで続く朝鮮通信使の旅程の費用を負担させ、彼らの経済力を弱めさせるねらいもありました。

これにより、家康はその間、朝鮮との交渉を担っていた対馬藩主宗義智に朝鮮通信使の派遣再開を朝鮮と交渉するよう命じます。

朝鮮との貿易に依存していた対馬藩は壬辰倭乱・丁酉再乱(文禄・慶長の役)の時、総勢600名の兵士を出兵させ、大半の兵士らが戦死しました。このため対馬では働き手が不足しており、農産物の収穫や漁獲量が急激に減り、朝鮮との貿易も中断された状態であり、経済的に追込まれた状況でした。

朝鮮との国交回復が最優先課題であった対馬藩主宗義智は家康の命令を受け、ただちに朝鮮に通信使派遣再開を要請します。しかし、戦争終結直後朝鮮では日本に対する敵対

총 16만명의 일본군은 조선을 침략하였다.

### ③ 에도막부 때 재개된 조선통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03년 에도(江戸; 현 도쿄)에 막부를 열었다.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선통신사의 재개를 원하게 되었다.

도쿠가와 막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특히 조선 침략에 실패했던 지난 정권과 달리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과의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막부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지방 영주들에게 에도까지 이어지는 조선통신사 일행의 여정을 대접하게 하여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이에야스는 그동안 조선과의 교섭 역할을 한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 조선통신사 파견 재개를 조선과 교섭하도록 명하였다.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해 온 소 요시토시는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총 5,000명의 병사를 출병시켰으며, 대다수 병사들이 전사하였다. 이 때문에 대마도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 생산이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조선과의 무역도 중단된 상태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조선과의 국교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던 대마도주는 이에야스의 명령을 받은 즉시 조선에 통신사 파견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전쟁 종결 직후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당초 통신사 파견에 회의적이었다.

일본이 또 다시 쳐들어 올 수 있다고 우려한 조선

心が残っており、通信使派遣に懐疑的に捉えます。日本が再び攻めてくることを恐れた朝鮮は、その真意を確かめるため、1604年7月四溟大師惟政(ユジョン)を「探賊使」に任命し、日本との交渉を担わせます。

1605年3月京都の伏見城で惟政は徳川家康と会見し、この席で家康は朝鮮への再侵略は絶対になく、むしろ朝鮮との講和を目指すと言いました。家康の意図を確認した惟政は朝鮮人捕虜1,390名と一緒に帰国しました。

惟政の報告を受けた朝鮮は1606年国交回復のため、次の2項目を条件として、日本へ提示します。先に江戸幕府側から国書を朝鮮へ送ること、朝鮮歴代の国王の墓を荒らした犯人を捕まえて朝鮮へ送ること。

上記、2項目の条件を受け入れた江戸幕府に対し、朝鮮は1607年総勢504名の第1回使節団を日本へ派遣します。第1回使節団の目的は、日本との講和締結と共に、日本国内の状況を把握し、日本が再び朝鮮を侵略しないことを確認することでした。

よって使節団の名称を「信義へ通じる」という意味を持つ「通信使」という名称を使用せず、江戸幕府の国書に対する回答と日本へ連行された捕虜らを帰国させるとの意味で「回答兼刷還使」という名称を使います。

1636年第4回使節団から「通信使」という名称を使用しましたが、通常は1607年第1回使節団である「回答兼刷還使」から1811(文化8)年の第12回使節団まで「朝鮮通信使」と称します。

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1604년 7월 사명대사 유정을 「탐적사(探賊使)」로 임명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하게 하였다.

1605년 3월 사명대사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조선의 재침략은 절대 없으며, 오히려 조선과의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야스의 의도를 확인한 사명대사는 조선인 포로 1,390명과 함께 귀국하였다.

사명대사의 보고를 받은 조선은 1606년 국교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일본에 제시하였다.

첫째, 에도 막부측에서 먼저 국서를 조선으로 보낼 것

둘째, 조선 역대 왕릉을 파헤친 범인을 잡아 조선으로 보낼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에도 막부가 수락하자 조선은 1607년 총 504명의 제1회 사절단의 목적은 일본과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일본의 실정을 파악하여 일본이 두 번 다시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절단을 「신의로 통하다」는 의미의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에도 막부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 포로들을 귀국시킨다는 의미로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636년 제4회 사절단부터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통상적으로 1607년 제1회 사절단인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부터 1811년 제12회 사절단까지 「조선통신사」라고 칭하게 되었다.

#### ④ 朝鮮通信使の終わり

17世紀後半になると江戸幕府の財政が困窮します。その間、18世紀に入るところ、当時幕府の財政を任されていた新井白石は1711年第8回朝鮮通信使を迎えるとき、経費節約と將軍の權威を高めるため、通信使の待遇を一段低くする目的で[徳川將軍の名称を「日本国王」とすること]、[旅程における接待の席は5か所に限定する]、[朝鮮通信使の宿所を訪れる使者は老中よりも身分が低い儀式担当の者にすること]、[江戸城で開催される三使の接待席には御三家は参席しないこと]などの大掛かりな改革を行います。

このような新井白石の改革は強引に行われたので、直接朝鮮通信使を接待する担当者らと意見衝突が起こります。特に、通信使の通訳などを担当している対馬の学者である雨森芳洲は、新井白石の改革に猛反発します。

結局、新井の改革は第8回朝鮮通信使の接待に限り行われ、第9回通信使の接待からは以前通りになります。

1787年11代將軍徳川家斉が就任当時、幕府の財政が悪く、日本全国に大飢饉が発生するなど国内の混乱した状況を通信使一行に見せなくなかった幕府は、朝鮮通信使の招待を当分の間延期します。

以降、將軍家斉の就任24年後に就任祝いの通信使(第12回)が派遣されますが、その後は通信使の交流は計画されましたが実現せず、幕府の財政悪化と統治権力の低下、西洋の通商と開国の圧迫、日本国内での尊王攘夷運動などの政治混乱などの原因で、江戸まで行かず

#### ④ 조선 통신사의 폐지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에도 막부의 재정은 궁핍해진다. 당시 막부의 재정을 담당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1711년 제8회 조선통신사를 맞을 때 경비 절약과 장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통신사의 대우를 한 단계 낮출 목적으로 도쿠가와 장군의 칭호를 「일본 국왕」이라 할 것, 여정 중 접대의 자리는 다섯 곳으로 한정 할 것, 조선통신사의 숙소를 방문하는 사자(使者)는 로쥬(老中)보다 직급이 낮은 의식 담당 영주(大名)로 할 것, 에도성에서 개최되는 삼사(三使)의 접대 자리에는 고산케(御三家)는 참석하지 않을 것 등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아라이 하쿠세키의 개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조선통신사를 접대하는 담당자들과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통신사의 통역 등을 담당하 아메노모리 호슈는 아라이 하쿠세키의 개혁에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아라이의 개혁은 제8회 조선통신사 접대에 한하여 끝나고, 제9회 통신사의 접대부터는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1787년 11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斉)가 취임했으나, 당시 에도막부의 재정이 어려웠었고, 일본 전국에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국내 혼란한 정세를 통신사 일행에게 보이기 싫었던 막부는 조선통신사의 초빙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쇼군 이에나리의 취임 후 24년이 지난 후에 취임 축하 통신사(제12회)가 파견되었으나, 막부의 재정 궁핍과 통치 권력의 약화, 서양의 통상 개방 압박, 일본 국내의 존왕양이운동 등의 정치 혼란으로 인해 에도까지 가지 않고 쓰시마에서 국서를 교환하며 이것이 마지막 통신사가 되었다.

対馬で国書を交換し、これが最後の通信使になります。

### ⑤ 朝鮮通信使の現代的意義

今日、韓日両国がお互いに克服しなければならぬ問題が多数存在します。この中でも歴史認識と慣習の相違、民族感情などが最も大きな課題として挙げられます。朝鮮通信使を通して、まず、相互の文化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ことが第一歩になります。

当時、雨森芳洲は「朝鮮との交渉では、まず相手側の存在を認め、時勢を知ることが最も重要だ」と述べました。この雨森の意見は、当時の対馬藩主に対する助言でしたが、今日の韓日両国も、この言葉の意味を刻む必要性があります。

東アジア共生の時代を構築するためには、韓日両国が「共通の歴史認識」を持つ必要があります。ドイツがその周辺国家と歴史認識を共有して、相互の不信感をなくし、信頼関係を構築する作業を通して、「共通の歴史認識」を成し遂げました。このようなドイツとその周辺国家との関係を考えてみれば、最近の韓日両国もお互い「共通の歴史認識」の構築作業が必要であり、このような作業が多文化共生時代を築く礎石になるはずです。

### ⑤ 조선통신사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한일 양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이 중에서 역사인식과 관습의 차이, 민족 감정 등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첫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아메노모리 호슈는「조선과의 교섭에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시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메노모리의 말은 당시 에도 막부에 대한 조언이었을 것이나,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도 그 뜻을 새겨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공생의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독일은 주변 국가와 역사인식을 공유하여 상호 불신감을 없애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공통의 역사인식」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독일과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최근 한일 양국도 상호「공통의 역사인식」구축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공생시대를 위한 공생과 공영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